



세계가 뜨끈한 방비닥에 열광하다

대한민국 '온·돌·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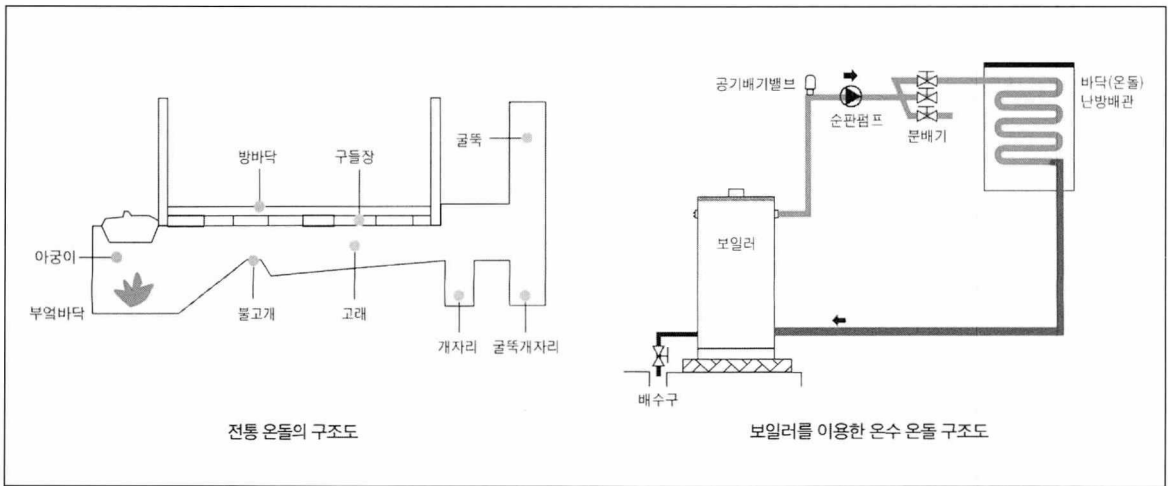
'김치'와 '한복'이 대한민국의 의식(衣食)문화를 대표하는 상품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이 두 가지 상품은 그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려는 많은 노력과 시도 덕분에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의(依)·식(食)·주(住)' 중에서도 유독 대한민국의 주거생활을 대표할 만한 문화상품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아파트'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생활문화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통 한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현실적으로도 이미 서구식 건축문화가 대세가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서구식 주거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런 문화상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돌'이다.

〈편집자주〉

●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지혜-온돌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을 찾아

보면 '온돌'이 'ONDOL'란 고유명사로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온돌은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난방방식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 그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 밑을 구불구불 지나가면서 방바닥(구들)을 덥히도록 만든 '온돌'은 그 역사만도 수 천년 전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온돌의 흔적은 기원전 5~4천년 전 두만강 유역의 서포항 집터 유적에서 발견되며, 구석기 시대에 처음 시작되어 신석기 시대를 거치며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러한 '온돌난방'은 우리민족에게서만 발견되는 독자적인 난방 방식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여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열을 방바닥 전체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고른 난방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돌의 장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바닥에 열을 가두어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어 경제적이다.

둘째, 방바닥 전체에서 열기가 발산되어 집 전체가 빠르고 고르게 난방 된다.

셋째,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와 달리 따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깔끔하다.

넷째, 뜨거운 공기가 천장에 물리는 서구식 난방과 달리 바닥을 데워주어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높이(바닥

에서부터 1m 50cm사이)를 따뜻하게 해준다.

다섯째, 발을 따뜻하게 해 주고 머리는 서늘하게 하여 건강에 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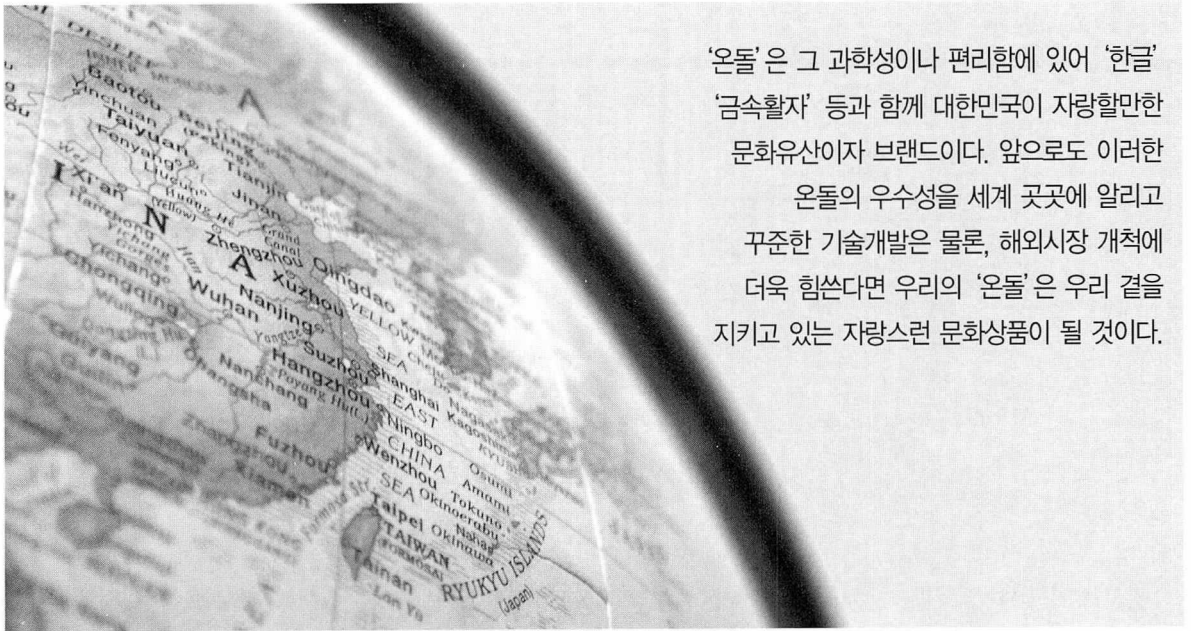
여섯째, 몸이 델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이용하는 서양식 난방과 달리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열기를 내어 쾌적하다.

이처럼 여러모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온돌난방'의 이점 때문에 주거양식이 아무리 서구화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서구식 아파트에 살면서도 '온돌'만큼은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궁이가 보일러로, 뜨거운 연기가 드나들던 고래가 뜨거운 온수가 지나가는 파이프로 바뀌었을 뿐, 온돌은 여전히 남녀노소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장점을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라면 뜨거운 온돌바닥이 주는 개운함을 몸소 채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 대한민국의 온돌문화를 알리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돌'의 우수성을 놓치고 있는 사이, 유럽 등 서구에서는 '온돌'이 가진 장점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온돌’은 그 과학성이나 편리함에 있어 ‘한글’ ‘금속활자’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이자 브랜드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온돌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꾸준한 기술개발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힘쓰다면 우리의 ‘온돌’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런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현대적 형태의 온돌난방을 속속 개발해 내고 있으며, 현재 ‘온돌난방’의 종주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ISO 바닥난방 표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많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달리 침대 등 입식생활을 하며, 라디에이터 난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 건설업계의 관련자들을 초대, 온돌난방의 장점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등 온돌난방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국내의 온돌난방 전문가들을 중국 현지로 파견하여 난방기술을 전수하는 등 대한민국의 온돌문화 전파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라디에이터 난방을 고수하던 건설사들도 점차 온돌난방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대부분 가정에서는 대류식(에어 퍼니스)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난방의 특성상 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펫을 깔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카펫은 자칫 먼지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알레르기성 천식과 비염 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돌난방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한 타운을 근거지로 그 쾌적함과 깔끔함으로 점차 각광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9년6월에는 국내 최초로 온돌난방을 위한 보일러를 미국 수출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온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과학성이나 편리함에 있어 ‘한글’, ‘금속활자’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이자 브랜드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온돌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꾸준한 기술개발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힘쓰다면 우리의 ‘온돌’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런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